

종교교육학연구 제19권, pp.21 ~ 45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4. 12

불교 오계의 지구윤리적 지평과 종교교육

김 용 표
(동국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세계 종교윤리의 공통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여, 이를 불교의 오계를 중심으로 한 윤리사상에서 보편적 지구윤리의 지평을 발견하고자 한 시도이다. 세계종교윤리는 비록 그 교의적 근거가 각기 다르지만 각 종교에서 가르치는 도덕률을 비교해보면 공통된 지구윤리 정신이 내재해 있다. 유교의 오상(五常), 자이나교와 힌두교의 오대서(五大誓), 그리고 썸계 종교의 십계명, 그리고 인도 신화의 전륜성왕의 정법정치의 기본법은 오계와의 상응하는 덕목이 있다. 초기 불교 경전에 설해진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등의 오계는 정형화된 신앙으로 테두리 지어지지 않는 초종파적 성격이 있다. 오계정신인 자비, 보시, 진실, 청정, 각성의 덕목은 교조적 신조에 관계없이 전 인류의 윤리덕목으로서 보편성이 있으며, 전인적 인격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의 규범이 될 수 있다. 최근의 지구윤리 사상가들도 세계종교가 공동으로 제시하고 있는 윤리 덕목으로 인간의 복지와 존엄성, 기본적 인간성의 최대요구, 중용의 덕, 황금률, 자발적인 동기론적 윤리, 삶의 의미 지평과 목표 설정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생명에 대한 외경, 정직하고 공정한 언어와 행동, 나눔과 보시의 삶, 남녀 간의 존경과 사랑, 각성된 삶을 윤리를 추구하는 오계정신과 부합된다. 오계가 지닌 철저한 인간 존중 사상과 그 덕목의 보편성은 인류 공동신앙의 실천윤리로서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다.

핵심 주제어: 지구윤리, 오계, 불교윤리, 공동의 신앙, 종교교육, 비교종교윤리학

I. 문제와 논의 방향

본 연구는 세계 종교윤리의 공통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여, 불교의 오계에서 그 지구윤리적 지평을 발견하고자 한 시도이다. ‘지구촌의

보편 윤리는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으나 인류 공동의 윤리를 정립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과제라고 본다.

최근 대화 문명시대를 향해 변화해 가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레너드 스위들러 (Leonard Swidler)나 한스 쾅(Hans Küng)과 같은 종교사상가들이 지구윤리 구상을 제안하고 있는 일은 종교교육적 차원에서도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종교학의 한 분과로 자리잡은 비교종교윤리학(Comparative Religious Ethics)에서도 종교윤리의 비교문화적 연구를 통해 여러 종교공동체에서 발견되는 윤리체계를 대조하고 분석하여 공통된 윤리체계의 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보편적 종교교육을 위해서는 종교교리나 사상의 유사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보다는 먼저 종교 윤리의 공통성의 찾아보는 것이 더 유용하고 실천적일 것이다.

세계종교윤리는 비록 그 교의적 근거가 각기 다르고 모순되지만, 각 종교에서 가르치는 도덕률을 비교해보면 공통된 지구윤리정신(Global Ethos)이 내재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종교 윤리의 보편성에 대한 재인식은 각 종교가 지닌 교의나 세계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대 지구촌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초기 불교경전에는 불교도의 사회적 생활을 위한 기준이 되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등의 다섯가지 계율 (pañcasīla)이 설해지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오계는 모든 종파를 떠나서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덕목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대부분의 세계종교 윤리에도 오계에 상응하는 계율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불교 윤리의 원형인 5계의 성립과정과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살펴보고, 유교의 오상(五常), 자이나교의 오대서(五大誓), 그리고 썸계 종교의 십계명과를 비교를 통해 세계종교 윤리의 공통성과 오계와의 유사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보편적 지구윤리 체계로의 오계의 성격을 찾아보기 위해서 인도의 전륜성왕 신화에 나오는 정법정치의 기본이념으로서의 오계와 현대의 지구윤리 선언에 내포된 오계의 정신을 분석해 볼 것이다. 그리하여 불교의 오계는 인류 공동의 신앙(Common Faith)의 보편적 실천교육의 지침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불교 윤리의 원형으로서의 오계

1. 오계의 원형

《중부경전 (Majjhima Nikaya)》의 〈사례야카 경(Saleyyaka Sutta)〉¹⁾에는 붓다가 살라 마을의 주민과 함께 선과 악에 대하여 문답하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서 붓다는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선행의 기준에 대해 설하고 있다. 이 경은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인간의 선악의 행위를 열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1) 신체적 행위: 살생, 투도, 사음
- (2) 언어적 행위: 거짓말, 이간하는 말, 거친 말, 꾸미는 말
- (3) 정신적 행위: 탐욕, 성냄, 잘못된 견해

붓다는 선하고 유익한 것(kusala)과 악하고 타락적인 것(akusala)의 구분은 개인적이나 집단의 행복과 복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주는 악한 행위는 반드시 불행한 과보가 있다. 선은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여러 덕과 일치하는 것이다. 선한 행동의 계율을 지키는 이들은 어느 곳에서도 성취와 적정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다. 여기에서 (1)의 신체적 행위와 (2)의 언어적 행위는 5계 중 전반부의 네 가지 계율이 되고 (3)의 정신적 행위는 (1)과 (2)의 행위의 근원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정신이다. 오계는 재가 불교윤리의 최소한 덕목이지만,²⁾ 이는 십선(十善, dasa kusala)의 기초가 되었고 출가자의 근본 계(sīla, 개인의 결의)와 율(vinaya, 불교공동체의 규칙)의 바탕이 되었다.

오계에 대한 기술은 불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남방불교의 상좌부(Theravāda)에 전하는 빠리문 오계의 완성된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중부경전》 vol. I. 41, pp. 285-288. 《남전대장경》 제10권, pp. 5-6.

2) 불교의 재가 신자는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수지해야 '계율을 구족한 재가신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삼보에 귀의한 사람이 우바새(優婆塞, upāsaka)이며, 대중부 계열의 율장에서는 5계 중 일부만 수지해도 우바새가 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오계 중 일부 만 받는 '일분행(一分行) 우바새', 또는 '소분행(小分) 우바새', '다분행(多分行) 우바새' 같은 용어가 생기고, 오계전부를 수지하는 하는 일을 '만분행(滿分行) 우바새'라고 부르게 되었다. T. 22, 《마하승기율》 p.306a.

- (1)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하는 계(學處)를 나는 받아 지키겠습니다.
(pāṇātipatā veramaṇī sikkhāpadaṃ samādiyāmi)
- (2)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不與取) 계를 나는 받아 지키겠습니다.
(adinnādvnā veramaṇī sikkhāpadaṃ samādiyāmi)
- (3) 부부 이외의 부정한 성관계에서 떠나는 계를 나는 받아 지키겠습니다.
(kāmesu miccācārā veramaṇī sikkhāpadaṃ samādiyāmi)
- (4) 망어에서 떠나는 계를 나는 받아 지키겠습니다.
(musāvādā veramaṇī sikkhāpadaṃ samādiyāmi)
- (5) 곡식으로 만든 술, 과일로 만든 술, 그 외에도 취하게 하는 것(마약 등),
게으름의
원인이 되는 음주행위를 멀리하는 계를 나는 받아 지키겠습니다.
(surāmeraya-majja-pamvdaṭṭhāna veramaṇī sikkhāpadaṃ samādiyāmi)³⁾

《선생경(善生經)》에는 살생, 투도, 사음, 망어를 4종의 악업으로 들고 악업을 만드는 원인을 탐욕, 성냄, 두려움, 어리석음이라고 설하고 있다.⁴⁾ 초기경전을 살펴보면, 오계 중 앞의 네 가지 계율이 먼저 제정되고 불음주에 대한 계율은 후에 첨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주는 악 자체는 아니나 악으로 인도하는 간접 원인이 되므로 이 계율이 제정되었다. 붓다는 “술을 마심으로써 재산을 잃고, 자제심을 잃어 타인과 싸움을 하게 되며, 병의 원인 되고, 명예를 추락시키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를 하게 되고, 지적 능력이 감퇴된다”고 경계하고 있다.⁵⁾

오계문에 나오는 ‘samādiyāmi’라는 말은 ‘나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굳은 서원의 뜻이 담겨있다. 한역 율장에는 ‘불살생계(不殺生戒)’ 등으로 번역하여 ‘타율적 금지(禁止)’의 의미가 강하게 표현되고 있으나, 본래의 어의는 악에서 스스로 ‘멀리 떠남(veramaṇī)’을 결심하는 자율적 의미가 있다.⁶⁾ 잘못을 멈추게 하는

3) 빠알리어의 원의는 “pāṇātipatā(=생물을 죽이는 것), adinnādvnā(=남이 주지않는 물건), kāmesumiccācārā(=삿된 음행), musāvādā(=망어), surāmeraya-majja-pamvdaṭṭhāna(곶주, 과일주, 정신을 취하게 하는 것들). veramaṇī(=떠나서 멀리하는 것). sikkhāpadaṃ(=學處,戒), samādiyāmi(=나는 지키겠다)” 등의 뜻이 있다.

4) 《長阿含經》 권11 〈善生經〉(T.1, p.70a), 《中阿含經》 권33 〈善生經〉(T.1, p.638c), 〈尸迦羅越六方禮經〉(T.1, p.250c) 등.

5) T. 1, 《善生經》 p.70ab. Digha-nikāya vol III, pp. 182-183.

6) 초기경전에는 자이나교의 5대서(五大誓)와 같이 ‘서원해야 할 것(vrata)’으로만 말하고 ‘오계(pañcasīlani: 복수 주격)’라고는 표현하지 않았다. 후대에 와서야 불교의 행동 규범은 ‘계(sīla)’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었다.

내적 힘을 율의(律儀, samvara) 또는 계체(戒體)라고 하는데, 계체는 잘못된 행위를 막아주고 멈추게 하는 내부 정신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2. 대승의 해석과 작지계(作持戒)

대승의 윤리는 단순히 계율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널리 일체 유정을 이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대승의 자비사상은 오계의 해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 을 하지 말라’는 소극적 계율을 ‘지지계(止持戒)’라고 하고, 이에 반하여, ‘~ 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오계를 해석하는 것을 ‘작지계(作持戒)’라고 한다. 작지계적인 계율 해석은 대승불교의 방편사상과 결부되어 오계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예컨대, 5계 중의 하나인 불살생의 경우, 이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 넓게 해석하자면 생명을 사랑하고 살려야 한다는 방생(放生)을 뜻하는 것이다. 살생을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운동에서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자는 것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불투도의 경우,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베풀어줘야 한다는 보시사상으로 전개된다. 불사음은 청정한 남녀 관계와 순결한 생활,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불망어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실한 생활, 불음주는 술이나 마약과 같이 취하게 하는 것을 마시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계율로 해석하는 것이다.⁷⁾

7) 국제오계과지운동(International pañcasīla movement)은 오계의 작지계적 해석을 기초로 설립되었다. 오계과지 운동은 세계불교도우의회(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1998년도에 방콕 정기대회에 필자가 세계 불교도의 세 권역인 테라바다, 대승, 금강승(밀교) 간의 공동윤리운동으로 제안했고, 2002년 말레이시아 대회에서는 WFB내에 오계과지운동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케 하였다. International pañcasīla-samadaniya movement 에서 제정한 작지계의 실천 원리는 다음과 같다. (a) In order to take care of lives of all sentient beings, we should protect air, water, earth, and nature from contamination and destruction. (b) Through the practice of offering and compassion for others, we are able to build an ideal society that is filled with wealthy and virtue. (c) The moral between wife and husband should be pure and faithful, so that youngster can learn. (d) We should speak responsible, tender, and compassionate words because words are the expression of one's will and the source of happy life. (f) Be abstain from drinking achohol because it injure one's health and good will. We can use it only in case of promotion cheerful dialogue or for the purpose of remedy. In

중기 대승불교시대에 성립된 《유사사지론(瑜伽師地論)》의 〈보살지(菩薩地)〉에서는 삼취정계(三聚淨戒)를 제시하고 있다.⁸⁾ 보살은 섭율의계(攝律儀戒)뿐만 아니라 섭선법계(攝善法戒)와 섭요익중생계(攝饒益衆生(有情)戒)도 아울러 수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취정계(三聚淨戒)는 단순한 지계만으로는 대승불교에 이상을 충분히 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성립된 것으로 대승의 이상적 인간상인 보살(菩薩)의 행동 기준으로 제정된 것이었다.

섭율의계(攝律儀戒)는 악을 그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5계, 10계,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 사미 10계 등으로 세부화 된 계율의 준수를 의미한다.⁹⁾ 섭선법계(攝善法戒)란 선행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몸과 입과 마음(身口意)으로 십선업을 비롯한 온갖 선법을 끌어 모아 호지하는 것이다.¹⁰⁾

섭선법계(kusaladharmaśāygrahaka-sīla)란 율의계를 지키면서 정각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선을 쌓아 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존경스런 어른을 공경히 모시며 병든 이를 불쌍히 여겨 간병하며 묘법을 베풀며 공덕자를 찬탄하며 일체유정의 복업자에게는 신심을 수회하며 다른 사람의 위범에는 참으며 일체 선근을 성불에 회향하며 바른 원을 일으키며 삼보에 공양하며 선품을 수습하며 학처를 지키며 선우를 친근히 하며 아직 범하지 않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과 같이 하며 이미 범한 죄는 불보살 동법자 앞에 발로하여 여법하게 없앤다.¹¹⁾

order to build an ideal society which is filled with wisdom, we should destroy any kind of drugs which destroy healthy body and mind. *WFB pañcasīla-Samadaniya Committee Report* (2002, Malaysia).

- 8) T. 30, 彌勒, 《瑜伽師地論》 권 40, 〈계품〉, pp. 510c-515c. 三聚淨戒는 유가사지론 설 이외에도 《華嚴經》 〈十地品〉에는 삼취정계는 십선계라고 밝히고 있다. 경전 성립사적으로 보아 《十地經》 설이 오래 된 것으로 보인다. 삼취정계에 대한 해설로는 목정배, 《대승보살계사상》(서울: 불지사, 1988) 참조.
- 9) 인도에서는 출가자의 계율이 따로 정립되어 오계가 재가자 중심의 윤리로 정착되었으나 보살계가 성행한 중국에서는 출가와 재가를 망라한 대승보살계의 중심적 윤리 덕목이 되었다. 형식보다 그 정신을 중시하는 유연한 대승의 계율 해석 전통에 따라 《우바새계경》이나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 등 대승계경류가 널리 유통되었다. 《우바새계경》에는 불살생계, 불투도계, 불허설계(不虛說戒), 불사음계, 불설사중과계(不說四衆過戒), 불고주계(不酤酒戒) 등을 6중계를 열거하고 있다 (T. 24. 《우바새계경》, p. 1049ab). 《보살내계경(菩薩內戒經)》에는 오계와 10선을 종합한 12계를 설하고 있으며, 《범망경(梵網經)》에는 10중계, 《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에는 10불가회계(不可悔戒) 등 변형된 형태의 오계가 설해졌다.
- 10) 부파 불교에서는 출가와 재가계를 포괄하는 10선계에 소홀하였으나 초기 대승불교에서는 십선을 중시하였으며, 般若經에서는 6바라밀가운데 계바라밀을 10선도로 해석하였다.

섭요익중생계(攝饒益衆生戒)란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행을 하는 것이다.

요익유정계이란 중생을 이익되게 하며 사회를 위하여 그 직분을 다하는 계이다. 그것은 유정의 사업을 돕는다. 법요를 설하고 은혜를 안다. 유정을 공포에서 구하고 사람의 불행을 위로한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베풀며 도리에 따라 힘들지라도 감당한다. 세간적인 것에 서도 선사에는 찬동하며 선행자를 표창한다. 악을 가책하여 불선을 멈추고 방편을 사용하여 유정을 불교로 이끈다.¹²⁾

율의계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하고 안정시키는 단계이며, 섭선법계는 정견으로 불법의 지혜를 깨닫는 반야의 단계이다. 그리고 섭요익중생계의 단계에 와서는 연기(緣起)의 법을 깨닫는 지혜에 기초하여 재시와 법시를 포함한 무한 자비를 무애 자재하게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3. 지심계(持心戒)와 동기론적 윤리

선을 행함에 있어서 이기적인 의도를 지니고 행하는 것은 ‘아직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한 선행(有漏善, 有所得善)’이라고 하여 ‘번뇌에서 완전히 해탈하여 행하는 선(無漏善, 無所得善)’과 구분한다. 스스로 마음을 청정케 하여 법계와 계합된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만을 참된 선행이라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대승의 보살계 사상은 ‘마음의 계(持心戒)’를 중시하게 되었다. 헛된 망상이 일어나 불성에 어긋나면 이는 곧 보살계를 파하는 것이며, 자기의 불성을 잘 호지하여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 (心不起) 곧 불성에 계합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승의 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이 된다.¹³⁾ 이른 바 칠불통계(七佛通戒)의 계송이라고 전해오는 시구에도 지심계의 사상이 응축되어 있다.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일체 선을 받들어 행하라.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청정하게 하는 일,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¹⁴⁾

11) 彌勒, 《瑜伽師地論》 권 40, 〈계품〉, T. 30, pp. 511ab.

12) 같은 책, T. 30, pp. 511bc.

13) T. 24, 《범망경(梵網經)》, p.1003c 참조,

14) 《법구경》 183계.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教” (To avoid all evil to cultivate good, to purify one's mind, this is the teaching of the Buddha). 七佛通戒라는 말은 法華玄義(T. 33, p.695c)에 나오는 용어로 과거 七佛 중 Vipassin 붓다

제3구의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청정하게 하라’는 가르침은 1-2구의 윤리적 계율의 근원인 마음의 계(持心戒)의 근원을 지시한 것이다. 《육조단경(六祖壇經)》에도 ‘자성오분법신향(自性五分法身香)’의 법문에서 지심계(持心戒)의 중요성을 설하고 있다.

- (1) 자기 마음 가운데 그림이 없고 악함이 없고
질투가 없고 탐냄과 성냄이 없으며
또한 빼앗고 해치는 마음이 없는 것이 계향(戒香)이다.
- (2) 모든 선악 경계나 형상을 보고
자기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 것이 정향(定香)이다.
- (3) 자심이 걸림이 없어 항상 지혜로서 자성을 비추어보아
모든 악을 짓지 아니하고 비록 많은 선을 행하더라도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며 위로 공경하고 아래를 보살피며
외롭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혜향(慧香)이다.
- (4) 마음에 반연(攀緣)하는 바가 없이
선도 생각하지 않으며 악도 생각하지 아니하여
무애자재한 것이 해탈향(解脫香)이다.
- (5) 자심에 이미 선악에 반연하는 바가 없다하더라도
공(空)에 잠겨 고요를 지켜서는 아니되니
모름지기 널리 배우고 많이 들어야 하며
자기 본심을 알아서 모든 불법이치에 통달하며
빛을 화하여 사물을 접하되 (和光接物) 나(我)도 없고 인(人)도 없어
바로 보리에 이르러 참 성품에 변함이 없는 것이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이다.¹⁵⁾

자성을 바로 보는 수행 속에 모든 계행이 포함되므로 비록 금계를 범했을 때는 불안할지라도 그 두려운 마음이 가히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 해탈을 얻는다는 것이다.

다만 마음 가운데 죄의 연(罪緣)을 없애면
각자 성품에서 진실한 참회가 되니
홀연히 대승법을 깨달아 참된 참회를 하고
삿된 행을 없애고 바르게 하면 곧 죄가 사라진다.
진리를 배우는 이는 어느 때나 자성(自性)을 관하라.

가 설한 시구라고 한다 (DN II, p.49).

15) T. 48, 《육조단경(六祖壇經)》, p. 353c. “自心中 無罪無惡無嫉妬無貪瞋無劫害 名 戒香.”

그리하면 모든 부처와 하나가 될 것이다.¹⁶⁾

불성(佛性)이 곧 계의 본체이므로 마음이 불성과 다르게 작용하면 곧 계를 파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선종(禪宗)의 일부에서 이른바 오직 관심(觀心)만을 수행하고 계율은 불필요하다는 이론도 나타나게 되었다. 공의 이념만을 내세우고 현실적 실천을 도외시하는 괴리현상은 관심수행(觀心修行) 중심주의의 선전통의 역기능의 하나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만약에 만물에 무심하면 욕정이 음(淫)이 되지 않는다. 음(淫)이 복이 되고 선이 재앙이 될지라도 도(盜)는 아니다. 무심(無心)이면 바로 무계(無戒)이다. 무계이면 바로 무심으로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너도 없고 나도 없다. 네가 없는데 무엇을 계라 하겠는가?”¹⁷⁾라는 무심무계(無心無戒)의 사상도 나오게 되었다.

III. 오계와 세계종교 윤리의 유사성

불교의 5계에 나오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등의 계율은 대부분의 세계 종교 윤리에도 보이고 있다. 물론 계율의 적용범위나 해석은 각 종교의 우주관이나 신관, 그리고 인간의 종교체험의 내용에 따라 그 유형과 의미가 다르지만 그 안에는 공통된 지구윤리정신¹⁸⁾이 있음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 자이나교의 오대서와의 관계

불교와 여러 차원에서 유사한 점을 많이 지니고 있는 자이나교(Jainism)¹⁹⁾에

16) 혜능(惠能), 《육조단경(六祖壇經)》 T. 48,, pp. 354c-355a. “但向心中除罪緣 各自性中眞懺悔 忽悟大乘眞懺悔 除邪行正即無罪 學道常於自性觀 即與諸佛同一類.”

17) 《경덕전등론(景德傳燈錄)》 권 4(禪文化研究所 編), p.60.

18) Hans Küng은 세계종교윤리가 공동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a) 인간의 복지와 존엄성 (b) 기본적 인간성의 최대요구 (c) 중용이라는 합일의 길 (d) 황금률 (e) 자발적인 윤리적 동기 (f) 삶의 의미 지평과 목표 설정 등을 들고 있다. Hans Küng, 《세계윤리구상 (Projekt Weltethos)》, 안명옥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2), pp.121-136 참조.

19) 창시자 바르다마나(Vardhamana)는 위대한 영웅(大雄)이라는 의미의 마하비라(Mahavira) 또는 나타(Natha)족의 성인이라는 뜻에서 ‘나타 붓다’라고도 하였다. 이는 석가모니(석자족의 성자, 大雄) 등과 유사한 호칭이다. 불전에는 고오타마 붓다 당시 대표적인 육사외도(六師外道) 가운데 니간타나타푸타로 기술되어 있다. 한역

서는 윤리규범으로 오대서(五大誓, pañca-mahāvratā)의 실천을 가르친다. 오대서란 살생(himsa), 망어(anrta), 투도(steya), 비범행(abrahma), 소유(parigraha)의 악덕에서 멀리 떠나야함을 말한다. 불교의 오계와는 마지막 ‘소유’에 대한 것만 다르다. 힌두교의 요가학과에서도 불살생(ahimsa), 진실어(satya), 불투도(asteya), 불음(barhmacarya), 비소유(aparigraha) 등 오법이 있는데 자이나교의 오대서의 용어를 부정문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오대서는 불상해(ahimsa)를 중심으로 하여 진실한 말, 남의 것을 투도하지 않음, 정결하고 순결한 삶, 모든 소유에 대한 애착을 버릴 것을 서원하는 것이다. 특히 불상해의 계율은 자이나교 윤리의 근본 덕목으로 어떠한 생명든지 해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되며 생과 관련된 직업을 갖는 것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자이나교도 가운데 상업에 종사하는 이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무소유(無所有)의 계는 물건의 소유를 엄격하게 금하는 것으로 고행(Tapas)을 중요시 하는 수행과 관련이 있다. 고행의 목적은 육체적 욕망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무소유에 의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고행 수행을 증진한다고 보는 것이다. 자이나교의 고행과 참회에는 금식과 절식, 굴욕을 참음, 고독, 봉사, 소유감 포기 등의 수행법이 있다. 그러나 붓다는 출가자에게 수행에 필요한 최저의 의발을 허락했고, 상가 공동체의 물건은 공유로 하고 공평하게 분배하였다. 또한 극단적인 고행은 육체만 괴롭히고 지혜를 감소시키므로 중도의 수행을 가르쳤다.

2. 셈계종교의 율법과의 비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유일신교 전통에서 신앙하는 10계명에도, “살생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노예, 가축 등 네 이웃에 속하는 것은 아무 것도 탐내지 말라”²⁰⁾ 등 불교의 5계에 상응하는 계명이 있다. 〈출애굽기〉의 10계명 중 전반부의 네 계명은 신을 믿는데 있어서 지켜야 할 계명이며, 후반부의 여섯 계명은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교의 신행 체계로 보면 삼보에 귀의를 서약하는 ‘귀명삼보계(歸命三寶戒)’²¹⁾는 신에 대한 네 가지 계율

경전에는 마하비라는 대웅(大雄, Mahavira) 야제자(若提子), 니건타(尼乾陀) 니건련타야제불달라(泥健連他若提弗?羅), 니건친자(尼乾親子), 노체친남(露體親男) 등으로 번역되었다. 자이나 수행자들은 노행(露行) 외도, 나형(裸形) 외도, 노형(露形) 외도, 무참자(無慙子) 등으로 호칭했다. 자이나교에 대해 나오는 불전에는 《아함경》, 《법구비유경》, 《사분율(四分律)》, 《백론(百論)》, 《대장엄론경(大莊嚴論經)》, 《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 《마하지관(摩訶止觀)》 등이 있다.

20) 〈출애굽기〉 20:1 ~ 17.

에 배대되고 오계는 인간에 대한 계명과 유사한 면이 있다.

첫째, ‘살인을 하지 말라’는 계명은 실질적인 살인행위 뿐만 아니라 살인의 계획이나 동기, 원인까지 포함된다. 예수는 이 계명을 동기론적으로 해석하여 미움을 지닌 마음도 마음속으로 살인한 것과 같다고 해석하였다.²²⁾ 불교의 불살생계의 범주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존재인 유정(有情)이 다 포함된다. 불교에서는 ‘스스로 생명을 죽이거나’, ‘다른 이를 시켜 죽이거나’, ‘방편으로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찬탄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술로서 죽이는 행위’, 모두가 살생에 해당된다²³⁾. 불살생의 가르침에는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게 된다는 인과법이 아울러 엄하게 설해진다. 살생은 자비심을 끊게 되고 모든 존재가 자신과 한 몸이라는 동체대비의 연기설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둘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혼인으로 성립된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는 계명이다. 예수는 은밀한 음욕조차도 간음으로 인정하였다.²⁴⁾ 대승의 계율해석도 마치 예수가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한 것과 유사하여 외면적 계율의 준수보다는 그 내면에 깔린 정신을 더 중시하고 있다. 《범망경(梵網經)》에는 스스로 음행을 하거나, 남을 시켜 하거나, 음란의 원인이나 인연이 될 일을 하지 말며, 그 대상도 동물 내지 천녀, 귀신녀에게까지 적용하고 있다.²⁵⁾ 재가자는 사음을 경계하였지만 출가자에게는 음욕을 지니는 것 자체를 금하였다. 그러나 우바새 중에는 우가(ugga)장자와 같이 예류과(預流果, sotapatti)의 경지에 도달하여 범행(梵行, brahmacariya, 성욕을 완전히 금함)을 지키는 이른바 ‘단음(斷淫) 우바새’도 있었다.

셋째, ‘도적질 하지 말라’는 계명은 불교의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라’는 계율과는 큰 차이가 없다. 도둑은 탐욕에 의하여 생기는 악행이다. 그러므로 탐심을 버리고 베푸는 보시(dāna)를 권한다. 대승에서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윤리를 강조하는데 이는 베풀어주고도 주었다는 생각을 하면 참된 보시가 될 수 없다는 사상이다.²⁶⁾ 준 자와 받는 자, 그리고 물건이 모두 공적인 순수

21)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 전승의 삼귀의 서약문은 다음과 같다. “我某甲始從今日乃盡至命存壽 歸依佛陀兩足中尊 歸依達摩離欲中尊 歸依僧伽 諸衆中尊 (나는 오늘부터 이 목숨이 다 할때까지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모든 탐욕을 떠난 청정한 가운데 가장 훌륭한 법에 귀의합니다.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장 고귀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T.24 《根本說一切有部百四羯磨》, p.456a.

22) 〈마태복음〉 5:21~26.

23) T.24. 《梵網經》, p.1004b.

24) 〈마태복음〉 5:27~30.

25) T.24. 《梵網經》, p.1004c. ?

26) 《金剛般若波羅蜜經》〈妙行無住分〉 第四, “수보리여, 온갖 법(法)에 대하여 마땅

한 보시에서 무한한 공덕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넷째,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은 불교의 ‘불망어(不妄語)’에 해당된다. 여기에는 거짓말뿐만 아니라 ‘이간하는 말(兩舌)’, ‘꾸미는 말(綺語)’ ‘험한 말(惡口)’ 등이 포함된다. 작지계적 해석으로는 부드럽고 진실한 말과 때와 장소에 적절한 말을 의미한다.

다섯째, ‘이웃의 아내나 노예, 가축 등 네 이웃에 속하는 것은 아무 것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불교의 불탐(不貪)에 해당된다. 앞의 계명이 외적인 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데 비해 이 계명은 내면적 의지를 제한하는 계명이다. 불교의 10선계에 탐욕과 성냄과 사견(邪見)을 버리라는 계율은 내적 계율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율은 불교의 오계에는 들어있지 않으나 여러 불전에는 효를 강조하는 가르침이 많이 있다.²⁷⁾

3. 유교의 오상(五常)과의 관계

중국에 불교가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불교도들은 유교적 가치체계와 불교의 윤리를 융합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는데,²⁸⁾ 그 대표적인 예가 유교의 중심 원리인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 등 이른바 오상(五常)이 불교의 오계와 유사하다고 해석한 일이다.

불교와 유교는 본래 일체였다.

불교 경전의 처음에는 다섯 가지 금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유교의 오상(五常)과 동일하다.²⁹⁾

이러한 시도는 불교의 중국화를 위한 방편이기도 했지만, 이는 실제로 오계윤리가 함축하고 있는 보편성을 예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히 머물러 있는 생각이 없이 보시(布施)를 해야 한다. 이른바 색(모양)에 머물지 않고 보시할 것이며 성·향·미·촉·법에도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於法 應無所住 行於布施 所謂不住色布施 不主聲香味觸法布施). 보살이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공덕도 생각하여 헤아릴 수 없다.”

27) 《善生者經》(T. 1), 《父母恩重經》(T. 85) 등.

28) 최초로 五戒와 五常을 일치시킨 논서는 北魏의 담정(曇靖)이 지은 《제위파리경(提謂波利經)》이다. 지금은 소실되었지만 天台大師의 《金光明經文句》권1, 《仁王經疏》권2, 그리고 唐의 法琳이 지은 《辯正論》등에 인용되고 있다.

29) 顏之推, 〈家訓歸心編〉《廣弘明集》3

가없게 여겨 상처를 내어 죽이지 않음을 인(仁)이라 한다. 깨끗이 살피어 훔치지 않음을 의(義)라고 한다. 해로움을 방지하여 음란하지 않음을 예(禮)라고 한다. 마음을 지켜 술 마시지 않음을 지(智)라고 한다. 법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음을 신(信)이라고 한다.³⁰⁾

오계를 유학에 비교하면 그 말하는 바는 오상인의(五常仁義)와 이름을 달리하나 그 본체는 하나라는 것이다. 불살생은 인(仁)이고 불투도는 의(義), 불사음은 예(禮), 불망어는 신(信), 불음주는 지(智)와 같다고 배대되었다. 그러나 천태지의(天台智顗, 538-597)는 오계를 오행(五行), 오방(五方), 오덕(五德), 오색(五色)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불살생은 동방에 배치한다. 동방은 목(木), 목은 인(仁)을 주로하고 인은 양생을 뜻으로 삼는다. 불투도는 북방에 배치한다. 북방은 수(水), 수는 지(智)를 주로하고 지는 불투도를 의로 삼는다. 불사음은 서방에 배치한다. 서방은 금(金), 금은 의(義)를 주로하고 의가 있는 자는 사음하지 않는다. 불음주는 남방에 배치한다. 남방은 화(火), 화는 예(禮)를 주로하고 예는 실수를 막는다. 불망어는 중앙에 배치한다. 중앙은 토(土), 토는 신(信)을 주로 한다. 망어를 저지르는 자는 중정(中正)에 계합하지 못한다. 중정은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³¹⁾

천태지의(天台智顗)는 지(智)는 불투도에, 예(禮)는 불음주에 배대하고 있으나 불교의 불음주 정신은 지혜를 밝게 하는 데 있으므로 오상의 지(智)에 배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중국종교사에서 오계와 오상, 십선과 오상의 각 덕목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배대되고 있으나, 오상은 인(仁)에 귀결되고 불살생은 자비정신에 귀결된다. 그러므로 두 종교의 근본 윤리정신인 인과 자비는 본질적으로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다. 계승(契嵩, 1007-1072)도 불교의 십선을 오계의 펼쳐진 형태로 보고 유교의 여러 윤리덕목과 일치시키고 있다.

불살생은 반드시 인이고, 불투도는 반드시 청렴함이다. 불사음은 정(正)이고, 불망어는 신(信)이며, 불음주는 반드시 불란(不亂)이다. 불기어(不綺語)는 성(誠)이며 불양설(不兩舌)은 비방하지 않음이다. 불악구(不惡口)는 욕하지 않음이고, 불에(不恚)는 해를 주지않음이며, 질투하지 않음(不嫉)은 다투지 않음이다. 불치(不癡)는 어둡지 않음이다.³²⁾

30) 담연(湛然), 《止觀輔行傳弘決》제6-2.

31) 天台, 《仁王經疏》권2.

32) 미치하타 료슈(道端良秀), 목정배 역, 《불교의 효 유교의 효》(서울: 불교시대사, 1994), pp.129-130.

이러한 유불일치론(儒佛一致論)은 중국종교사의 특징인 삼교합일론(三敎合一論)으로 발전 전개되었으며 불교의 중국 토착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4. 인도의 전륜성왕 신화와 오계

불교 초기경전에는 인도의 신화적인 이상적 정치지도자인 전륜성왕(轉輪聖王, cakravattiraja)이 정법정치의 통치법으로 오계를 선택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빠알리 경전에 전륜성왕은 정법에 의해 사해를 통일하고 국민을 다스리는 가장 이상적인 군주로 기술되고 있으며, 정법과 정의의 실천자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전륜성왕의 ‘왕(rajā)’이라는 용어는 그의 지배하에 있는 백성을 정의롭게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불교는 참된 왕의 역할과 왕도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전륜성왕 신화를 통해 모델화 하였으며,³³⁾ 불교 경전에 기술되고 있는 정법의 통치자상은 그 후 여러 불교국의 제왕들의 이상이 되었다.³⁴⁾

전륜성왕은 지구의 전체에 그 지배력이 미치지만 무력이나 살생에 의하지 않고 법력으로 통치한다. 그의 정복은 정의에 의한 것이며 단지 방편일 뿐이며 전륜성왕은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통치자들을 새로운 재산이나 소유를 향한 탐욕을 제거시키고, 무소유의 정신을 가르친다고 한다.³⁵⁾ 전륜성왕은 평화와 안전, 그리고 존엄한 생활을 위하여 도덕적 청정성을 존중하였고,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오계의 준수를 최상의 방법으로 생각하였다. 전륜성왕이 그의 왕국의 법으로서 제정한 계명은 다음과 같다.

- (1) 어떤 생명도 파괴시키지 못한다.
- (2) 누구도 타인의 적법한 소유물을 강제로 빼앗거나 도둑질하지 못한다.
- (3) 정당치 못한 성 관계에 빠지지 못한다.
- (4) 정직하지 못한 언행을 금한다.
- (5) 분별심을 잃게 하거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마약이나 주류를 마시지 못한다.³⁶⁾

전륜성왕의 오법은 종교의 신조와 사회 정치적 윤리의 융합을 시도한 것이

33) Dammavihari, "Buddhist ethics of pañcasīla", 오계파지운동 국제본부 편, 《오계파지》(서울: 불지사, 1995), pp. 259-261 참조.

34) 인도의 아쇼카왕, 양 무제, 신라 진흥왕, 법흥왕 등이 있다.

35) D.11: 173, 111: 63.

36) 《장부 경전》, D.11: 173, 111: 62.

다. 물론 불교도의 개인적으로 수지하는 종교적 계율과 전륜성왕이 제시하고 있는 국가의 법으로서의 오계는 차이점이 있으나 오계를 국가 질서 유지의 기본법으로 삼았다는 것은 오계가 지닌 보편적 사회규범성과 도덕적 보편타당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IV. 보편적 지구윤리와 오계

지구윤리운동의 시초는 인도의 전륜성왕 이야기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초기 불교경전에서 이미 처음 제시된 바 있다. 현대의 지구윤리의 선구 작업은 파리에서 1991년에 열린 ‘종교와 평화를 위한 세계 회의’에서 시도되었으며, 그 후 1993년 시카고 ‘세계 종교 회의’에서 한스 쾅 교수가 작성한 ‘지구 윤리에 향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시카고 세계 종교 회의에서는 위대한 세계종교의 가르침에서 지구윤리의 원리를 찾고자 하였다.

우리는 세계종교들의 가르침의 핵심 속에 공통되는 가치들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지구윤리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단지 이러한 진리가 이미 알려져 있지만 마음과 몸으로 아직 실천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³⁷⁾

〈지구윤리선언문〉에는 평화의 파괴, 지구 생태계의 파괴, 인간의 소외, 어린이의 학대, 사회혼란, 불의, 종교적 이름의 폭력, 경제적 불평등, 남녀차별, 탐욕주의로부터의 해방과 변화를 위한 윤리의 실천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 템플대학의 레너드 스위들러 (Leonard Swidler)는 ‘지구윤리의 보편적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a Global Ethic)’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다양한 윤리적 종교적 전통에 속해있는 우리들은 스스로 지구윤리선언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부적인 윤리적 항목을 의미하는 율법적 의미의 복수로서의 윤리(ethics)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정신을 의미하는 단수로서의 윤리(ethic)인 에토스 (ethos)를 지칭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선과 악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와 행동 규범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동참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³⁸⁾

37) 1993년 시카고 종교의회 100주년 〈지구윤리선언문〉의 일부.

38) Leonard Swidler, *et alii*, *Death or Dialogue* (Philadelph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0).

이러한 지구윤리의 구상과 실천을 위하여 모든 종교와 윤리학자, 그리고 공동체의 책임 있는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모든 학문적 기관들은 종교나 이데올로기와 관계가 있건 없건 간에 전문가로 하여금 다른 학자와 연계하여 ‘지구윤리’를 정립키 위해 영속적인 지구윤리연구센터 (Global Ethos Research Center)의 건립도 제안하였다. 시카고 〈지구윤리선언문〉도 개인과 집단의 지구적 사유로의 의식전환의 필요성과 아울러 지구윤리에의 동참을 호소하는 것으로 결론 맺고 있다.

우리의 지구는 각 개인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지지 않는 한 더 좋게 변화될 수 없다. 우리는 명상, 기도, 적극적인 사고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여 우리의 지각을 넓혀가도록 약속해야 한다. 모험과 희생의 각오 없이 우리의 현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이해하는 것에, 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평화를 육성하며 지구를 벗으로 삼는 삶의 양식과 함께 공동적인 지구윤리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한다. 우리는 종교의 유무를 떠나서 이런 선한 일을 하려는 선남선녀 모든 사람을 초대한다.³⁹⁾

지구촌의 인류는 이른바 대화문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사유체제에 대한 근본적으로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인간의 의식이 점점 더 지구적 사유구조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현대 종교사상가들이 보편적 세계윤리구상을 제안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라 할 것이다. 스위들러를 비롯한 지구윤리 운동가들이 제안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요약할 수 있다.⁴⁰⁾

(1) 지구윤리의 언어는 모든 종교 및 윤리 공동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한다. 그 언어는 위로부터의 계시에 의한 명령어가 아니라 인간에 근거한 아래로 부터의 언어이어야 한다.

(2)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중심적(anthropo-centric)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간-우주중심적 (anthropo-cosmos-centric)인 언어여야 한다.

(3) 각 종교윤리를 재해석할 때 보다 융통성 있게 해석할 수 있도록 서술되어야 한다.

39) 1993년 시카고 종교의회 100주년 〈지구윤리선언문〉의 일부.

40) Global Dialogue Institute <http://astro.temple.edu/~dialogue/>, Leonard Swidler, ed., *For All Life: Toward Universal Declaration of a Global Ethic*, Oregon, White Cloud Press, 1999, pp.17-22. Leonard Swidler, et alii, *Death or Dialogue* (Philadelph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0) 참조.

(4) 지구윤리 선언은 자율성을 침범치 않고 스스로 최대한의 윤리를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의 범위를 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는 쪽으로 되어야 한다.

(5) 지구윤리의 기본 원칙은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 “네가 남에게 원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하라(‘What you do not wish done to yourself, do not do to others,’ or in positive terms, ‘What you wish done to yourself, do to others.’)”라는 정신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 황금률의 정신은 그 표현양식은 다르지만 모든 종교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⁴¹⁾ 이러한 세계종교 윤리의 황금률의 정신은 이기적 삶을 이타주의적 삶으로 승화하려는 데 그 근본정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6) 인간이 추구하는 사랑의 대상은 자기 가족, 친구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세계, 우주, 그리고 존재의 근원에 까지 넓혀져야 한다.

(7)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은 진정한 자기애에서 출발하여 자리에타의 차원으로 승화되어야한다. 인간은 상호 의존성을 통해 보다 인간적이 될 수 있으며, 남을 사랑하는 데서 인간성의 완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8) 인간은 항상 목적(주체)으로 대해야지 수단(객체)으로 대해서는 안된다.

(9)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이는 보호할 수 있는 이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41) ①조로아스터(628-551.B.C.E.): “모두에게 선한 것은 내게도 선하다. 또한 내게 좋다고 여겨지는 것은 모두에게 그렇다. 오직 모두에게 통용 될 수 있는 법만이 진실한 것이다.”(Gathas 43:1). ②공자(551-479 B.C.E.): “네가 남에게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논어 12:2, 15:23). ③고오타마 붓다(563-483 B.C.E.): “내가 내 생명을 아껴 고통을 피하고 낙을 원하듯 남도 또한 그러하다. 그러므로 남을 죽이거나 죽이도록 하지 말라”(Sutta Nipata 705, Samyutta Nikaya V 353). ④ 힌두서사시 마하바라타(B.C.E. 3C): “네가 네 자신에게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원하지 말라”(mahavharata, Anusasana Paarva 113.8). ⑤ 유대교 성경(B.C.E. 5C):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레위기 19:18). ⑥ 예수(1C): “네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마태복음 7:12). ⑦무하마드(570-632): “최상의 종교는 이것이다. 네가 좋아하는 것을 남을 위해서도 좋아하도록 하라. 또한 네게 고통스러운 것은 남에게도 고통이다”(Hadith Iman 71:2). ⑧임마누엘 칸트(1724-1804): “인간을 어떤 경우라도 수단으로 삼지 말고 그 자체목적으로 대하라”(실천이성비판 A 54) 등. Leonard Swidler, ed., *For All Life: Toward Universal Declaration of a Global Ethic*, Oregon, White Cloud Press, 1999, pp. 19-21.

(10) 이러한 윤리정신을 확대했을 때 인간이 아닌 모든 생명체와 자연도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는 자체로서 경이롭게 대해야 한다.

이러한 열 가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개인의 준법의 책임, 양심과 신앙의 책임, 언어와 정보의 책임, 결정의 참여에 대한 책임,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한 책임, 재산에 대한 책임, 노동과 일에 대한 책임, 어린이와 교육에 대한 책임, 평화에 대한 책임, 자연과 환경의 보전에 대한 책임 등 구체적 행동 지침도 제안하고 있다.⁴²⁾

이상의 지구윤리 구상에 나타나고 있는 윤리정신을 살펴보면 불교 오계의 긴밀한 상관성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스위들리의 (3)~(5)의 원칙 즉, ‘융통성 있는 윤리해석의 틀’이나 ‘최소한의 범위 원칙’, 그리고 ‘황금률의 윤리’는 대응에서의 오계의 작지계(作持戒)적 해석 정신에서 그 동일성 찾을 수 있다. (1)의 원칙, 즉 지구윤리언어는 ‘위로부터의 명령어가 아니라 인간에 근거한 아래로부터의 언어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데, 이는 오계의 초종파적 성격과 일치하는 요소이다. (2)와 (6)~(10)의 원칙은 ‘사랑의 대상의 무한 확대’, ‘자기애로부터 벗어남과 상호의존성’,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합일적 감정’ 등으로 일체 유정을 자신의 생명과 동일시하는 불교의 동체대비의 연기적 윤리관과 부합한다. 그러므로 불교는 지구윤리 운동을 적극 지지할 뿐만 아니라 오계정신을 지구윤리 제정의 기본 원리로 삼을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지구윤리는 비폭력의 문화, 연대성의 문화, 평등의 문화, 관용의 문화의 형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생명에 대한 외경, 정직하고 공정한 거래, 참된 말과 행동, 남녀 간의 존경과 사랑, 각성된 삶을 윤리를 추구하는 오계정신과 부합된다. 그러므로 오계는 어떤 사회에서도 적용 가능한 세계 윤리의 전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V. 공동신앙의 실천 윤리로서의 오계의 교육적 의미

불교의 오계는 인류 ‘공동의 신앙(common faith)’의 보편적 실천 교육의 지침이 될 수 있을까? 보편적 종교교육을 위해서는 종교심의 원형을 발견해내려는 시도가 있어 온 것과 같이⁴³⁾ 인류 공동의 신앙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윤

42) Global Dialogue Institute <http://astro.temple.edu/~dialogue/>

43) 종교심의 원형에는 공통된 어떤 심리적 기원이 있을 것이라는 설은 동서의 종교와 심리학에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온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은 무의식설을 가르치고

리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공동의 신앙’이라는 개념은 존 듀이(John Dewey)가 ‘특정 종교나 교리나 의식과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간을 보다 풍부하게 하는 이상에 대한 태도인 종교적인 것(the religious)을 인류의 공동의 신앙을 하자’는 제안에서 유추된 개념으로,⁴⁴⁾ ‘인간은 누구나 본래 영성이나 고유한 종교성이 있으며 이를 윤리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신념과 태도가 있다고 믿는 것’로 이해하고자 한다. 공동신앙의 내용에는 자비(慈悲), 사랑, 평등, 용서와 이해, 우정과 친절, 진실성, 자유, 책임, 공정, 생명존중 등의 덕목이 들어갈 수 있다. 종교성은 청정성이나 희열성, 신성, 안온성, 외경, 장엄, 신비, 감사, 자비, 자타일체 등의 감성으로 구성되고 있다. 각 종교별로 표현되고 있는 인간의 종교성은 힌두교에는 아트만(atman, 神我), 도교에서는 도성(道性)이나 천성(天性)이라 표현되고, 회랍에서는 로고스(logos), 불교의 불성(佛性), 유신론적 종교의 신성(神性), 유교의 심성(心性) 등의 개념이 있다. 그러나 특정 종교를 떠난 종교성도 존재할 수 있다.⁴⁵⁾ 이러한 기본적인 심성을 어떻게 계발하고 증진시킬 것인가 하는 일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일이 공동신앙의 실천윤리 교육의 과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동의 신앙의 실천윤리는 어떤 정형화된 도그마의 신앙으로 테두리 지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계의 초종파적 성격은 공

있는 불교의 唯識思想 뿐만 아니라 플라톤의 인식론과 Meister Eckhart (1260-1327), 그리고 Carl G. Jung, Abraham Maslow, Roberto Assagioli 등의 종교심리 이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김용표, 〈종교성의 원형과 종교교육〉 《불교와 종교철학》 (동국대 출판부, 2002), pp. 267-274 참조.

44) John Dewey, *A Common Faith*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34), pp. 9-10. 이러한 경험의 질로서의 종교란 심미적, 과학적, 도덕적, 정치적, 사교적 우정 등 모든 경험의 영역에 속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경험은 특정 “종교”(a religion)가 아닌 “종교적인 것”(the religious)으로 인간의 종교성(religiosity), 을 말하는 것이다. 반면에 ‘종교’는 제도화된 조직을 지닌 특정신념과 실천 체계일 뿐이다.

45) 아브라함 매스로우(Abraham Maslow) 자기실현적 인간(self-actualizing people)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 도달점에 이르러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고경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데, 여기에서 종교적 영성과 유사한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 지고경험의 개념에는 일체의 이분법적 갈등이나 분열이 사라진 초인간적 무욕의 초탈한 상태, 확고부동한 자기 주체성과 동일성을 확립하는 일, 사랑으로 가득한 무아의 심성, 물질세계의 법칙에서 자유로운 마음, 공포·불안·혼란·방어·갈등이 사라지고 융합·평화·아름다움·선행·행복 등의 충만한 마음 등이다. 이는 어느 종교를 떠나서 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고, 비록 종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감성이다. Abraham Maslow, *Religion, Value and Peak-experience* (New York: King Press, 1973), p.37.

동 신앙의 실천윤리로서 적합한 모델이라고 본다. 오계의 수용에는 어떤 종교적 신조나 교주에 대한 신앙이 요구되지 않는다. 오계정신인 자비, 보시, 진실, 청정, 각성의 덕목은 어떤 종교에 대한 교조적 신조나 종파적 교의에 관계없이 전 인류의 윤리덕목으로서 보편성이 있다. 몸과 입과 뜻(身口意)의 청정한 행위를 지향하는 오계의 이념은 인간의 정신적 성장과 전인적 인격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적 윤리 덕목으로, 어떤 형태의 생명이든 존중하는 교육, 타인의 재산이나 소유의 권리의 존중과 보시의 교육, 혼전, 배우자 관계, 혼인 외의 성적 관계 등을 존중과 청정한 마음을 지니는 교육,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직성을 존중하는 교육, 마약이나 주류 등의 삼가로 바른 판단과 항상 각성되어 있는 삶을 사는 교육의 규범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구체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존중의 교육이다. 오계의 제1계는 생명에 대한 사랑과 존중, 생태계에 대한 배려, 생명에 대한 위협에 대한 보호, 그리고 평화교육적 의미가 있다. 일체 유정은 특정한 존재의 종속물이 아니며 인간의 소유도 아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학대하거나 파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생태학적 폭력도 긍정할 수 없는 것이다. 스스로 짐승을 죽이거나 죽이게 하는 일, 낚시나 사냥 등 생명을 죽이는 취미 활동, 무기의 제조 등은 이 계율을 어기는 일이 된다.

둘째, 베풀어 주는 교육이다. 주지 않는 것에 갖지 않는다는 오계의 두 번째 재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의 한계와 타인의 소유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있다. 정당한 경제생활은 필요하나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재물의 획득이나 소유는 멀리 하며 절제되고 검약한 생활을 권장한다. 경제적 소유는 합법적이고 스스로 노력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재물의 베품뿐만 아니라 진실을 알려주는 법시(法施)와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無畏施)도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정직하고 진실한 언어 교육이다. 불망어에 대한 계율은 정직하고 자비로운 언어 언어의 사용에 관한 계율이다. 이는 정신적 진실성과 책임감, 거짓이 없는 인간관계에 대한 윤리이다. 말이든 문서든 약속과 계약에 대한 기만과 속임, 그리고 욕설이나 이간질, 아첨하는 말 등은 불망어계를 깨뜨리는 것이다. 이 계율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사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넷째, 순결 교육의 의미이다. 불사음에 관한 계율은 남녀 상호간의 예절의 지침이다. 생물학적으로 성은 인간의 종족 번식의 방법으로 간주되며, 인류의 영원한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재가인의 경우, 결혼은 곧 출산과 자녀 양육과 연결된다. 정당한 배우자 이외의 성의 문제는 배우자간의 신뢰를 깨뜨리며, 정신적 순결성도 파괴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의 질서를 혼란케 한다. 현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향락주의와 성의 도구화, 미혼모와 아버지 없는 아이들 문제 등의 사회문제도 이 계율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⁴⁶⁾

다섯째, 항상 각성된 삶의 교육이다. 불음주계 속에는 마약 등 정신을 흐리게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음주 자체는 비윤리적인 악행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붓다는 음주의 문제를 종교적으로는 판단력을 흐리고 지혜를 닦는 수행에 큰 장애가 된다고 보았으며,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요소가 많음을 설파하였다. 주류에 중독이 되면 경제적 안정과 조화로운 사회관계도 파괴한다. 다만 의학적 필요할 때 의사의 권고로 음주를 허락했다. 실제로 최근의 의학적 연구는 음주가 건강을 해치고 심각한 두뇌의 손상도 가져온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상의 오계에 내포된 인간 교육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주체적 자율성의 윤리라는 점에 있다. 오계문에서 ‘~ 으로부터 멀리 떠난다 (veramani)’는 어의에서 볼 수 있듯이 밖에서 금지하는 계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맹세 하는 의지적이고 자발적인 계율이다. 위로부터가 아닌 자기 내면의 소리에서 우러나오는 동기론적 윤리의 성격이 있다. 불교윤리의 바탕에는 항상 업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업(karma)은 바로 의지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붓다는 "세계는 인간에게 어떤 외적 의지처도 제공하지 않는다. 인간의 세계는 그것의 운명을 인도할 어떤 외적 힘도 가지고 있지 않다"⁴⁷⁾고 단언하였다. 불교의 업보관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으므로, 스스로를 잘 제어해야 한다는 자기 교육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불교 오계의 정신을 요약하자면 생명에 대한 존중, 타인의 소유에 대한 존중, 배우자에 대한 존중, 말과 행동의 정직성, 그리고 항상 깨어있는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것이다. 오계가 지닌 철저한 인간 존중 사상과 그 덕목의 보편성은 인류 공동체가 사랑과 신뢰의 바탕위에 공존하며 성장해 갈 수 있는 세계윤리 구상을 위한 기본 원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46) 《사레야카경》에서 붓다는 여성은 가정의 태반(胎盤)으로서의 존중받아야 하며 배우자의 신뢰와 지속적인 가족의 안정으로서의 결혼의 존엄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다음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부모가 책임지는 가정안에서의 자녀를 애정으로 돌보아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특히 남존여비의 사회에서 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의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는 미혼의 소녀와 자매, 그리고 약혼한 소녀나 결혼한 여인 등 모든 계층의 여인을 존중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중부경전》 vol. I. 41, pp. 285-288. 《남전대장경》 제10권, pp. 5-6. 《중부경전》 M. 1-41.

47) *Majjhima Nikaya, Ratthapala Sutta*. M. 11: 68.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이다. 이외에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 것인가. 자기를 잘 다룰때 얻기힘든 주인을 얻은 것이다.(Atta hi attano natho paro siya attana va sudantena natham labhati dullabham) 《법구경》 160계 참조.

《참고문헌》

- 《根本說一切有部百日羯磨》(T.24)
《金剛般若波羅蜜經》(T. 8)
《마하승기율》(T. 22)
《梵網經》(T. 24)
《法句經》(T. 4)
《菩薩內戒經》(T. 24)
《父母恩重經》(T. 85).
《숫타니파이타》
《六祖壇經》(T. 48)
《長阿含經》(T.1),
《중부경전, *Majjhima Nikaya*,》
《증지부경전, *Anguttara-nikāya* 》
〈마태복음〉
〈출애굽기〉
- 김용표, 《불교와 종교철학》. 서울: 동국대 출판부, 2002.
———. 〈지구윤리 운동과 불교의 오계〉, 《해인》 222호, 2000.
목정배, 《대승보살계사상》, 서울: 불지사, 1988.
오계과지운동 국제본부 편, 《오계과지》, 서울: 불지사, 1995.
미치하타 료슈(道端良秀), 목정배 역, 《불교의 효 유교의 효》, 서울: 불교시대사, 1994.
최법혜 편역, 《불교윤리논집》. 안동:고운사본말사교육연수원, 1996.
平川彭, 《원시불교의 연구: 교단조직의 원형》, 석능혜 역, 서울: 민족사, 2003.
Dewey, John. *A Common Faith*.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34.
Global Dialogue Institute, <http://astro.temple.edu/~dialogue/>
Küng, Hans. *Projekt Weltethos*, München, 1990. 안명옥 옮김, 《세계윤리구상》, 왜관 : 분도출판사, 1992.
———. *Global Ethic, The Declaration of Parliament of the World's Religions*, London: SCM Press, 1993.
———. *A Global Ethic and Global Responsibilities*, London: SCM Press, 1998.
Maslow, Abraham, *Religion, Value and Peak-experience*, New York: King press, 1973.
Swidler, Leonard., "Buddhism and Christianity: The Age of Global Dialogue and Peace", 《21세기 문명과 불교》,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6.
———. *Religious Liberty and Human Rights in Nations and in Religions*, New York: Hippocrene Books, 1986.
Swidler, Leonard, ed., *For All Life: Toward Universal Declaration of a Global Ethic*,

Oregon, White Cloud Press, 1999.

Swidler, Leonard *et alii*, *Death or Dialogue*. Philadelph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0.

Tiwary, Mahesh, *Perspective on Buddhist Ethics*, Delhi: Delhi University, 1989.

원고접수: 2005년 5월 10일 1차심사: 6월 2일 게재승인일: 6월 10일

연구자 소개: r김용표

① 전공: 종교학·불교학·종교교육학 / 소속: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② 관심영역: 불교교육학, 불교경전해석학, 비교종교철학

③ 주요논저: 《불교와 종교철학》, 《경전으로 본 세계종교》(공저), 《한국종교와 인격교육》(공저)

④ E-mail: sunyata@dongguk.edu

Buddhist Pañca-sīla as Global Ethics and Its Educational Meaning

Yong-pyo Kim, Ph.D.
(Professor of Dongguk University)

《Abstract》

Although there are diversities and differences in each religion concerning fundamental doctrines about moral ethics, there are also common interests such as the support for universal human rights, love, peace, justice and preservation of the endangered Earth. This new understanding about the universality of world religious ethics could be a crucial key to finding solutions to contemporary world problems, despite different doctrines and religious outlooks. The practice of love, Compassion, and brotherliness, which are common to all religions, can lead us to the final goal of world ethics.

The five precepts in Buddhism (pañcasīla), consisting of abstention from killing, stealing, sexual misconduct, lying and taking intoxicants, are universal. These basic tenets can be found not only in ancient and modern morality but also in all religions. But it is also true tha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basic precepts is a little bit different from one religion to another.

Pancavrata in Jainism and Pancayama in Hinduism, both of which deal with five principles of non-violence, truth, non-stealing, sexual continence and non-possession are very similar to pañcasīla. They also appear in the Ten Commandments upheld by the followers of Judaism Christianity and Islam. The following commandments reminds us of the pañcasīla; "You shall not murder.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You shall not steal. You shall not bear false witness against your neighbor.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wife or his male or female slave, or his ow or his ass, or anything that is your neighbor's."

Suffice it to say that the pañcasīla signifies a universal principle of morality. As the basic code of moral conduct, the pañcasīla is designed to regulate human conduct so that human beings can live together peacefully in civilized communities with trust and respect. Thus, peace will no doubt be prevalent in the world if the pañcasīla is observed in daily life by everyone.

How can we define a universal ethics as a model of good behavior irrespective of religious faith? A great philosopher Kant asserted that a criteria of good and bad is not decided by the will of God or the teaching of specific religions. It is decided by a self-evident ethical code that can be acceptable to everybody.

The pañcasīla suggests a global ethos such that the world community could grow and co-exist on the basis of mutual love and trust. The spirit of pañcasīla (compassion, charity, truth, purity, awakening) has ethical universality irrespective of religious sects and creed. These virtues which are delivered and placed before the world in their unmistakably specific form by Buddhism over twenty-five centuries ago can be taken out of a Buddhist context without any injury or injustice, and they can be delivered anywhere else, embodying at the same time their essential spirit, and laying the same intended emphasis.

The pañcasīla is a universal moral standard that can be applied to any religion, nation, race or sectarian community. The Five Precepts of Buddhism are a guiding light which can free the individual and collective alike from a world of mercilessness, avarice, falsehood and injustice. It is a teaching that shows nature and man as one family (or unity). It is also a universal common ethic that awakens a social responsibility for dignity and equality of the poor and the oppressed. Therefore the pañcasīla-ethos can be a fundamental principle for a new paradigm for the world ethical movement with which the whole of humankind can find empathy. The pañcasīla could then provide the basis for a universal ethical model for the whole of humankind, not simply precepts for Buddhists.

"The Declaration on Global Ethics", which was drafted at the World Religion Congress 1993, suggests some guidelines for practice for the ethics movement: we should try to make every effort irrespective of one's own ideology or religious beliefs or affiliations, to eliminate the destruction of world peace and environmental devastation, alienation of human beings, the abuse of children, social disturbances, injustice, violence in the name of religion, economic inequality, greed, sex discrimination etc.

As the world comes closer, we are realizing more urgently the need for agreement on a global common ethics. So now is the right time for each singular cultural and ethnic group to give up self-righteous attitudes and join a global moral rearmament movement. All mankind should accept responsibility for the needs of this time and be prepared to explore a universal ethics and to support the Global Ethics Movement.

Key words: global ethics five precepts, Buddhist ethics, common faith, religious education, comparative religious ethics